

##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공경에 관한 사목교서,

### 그리고 몇 가지 확인사항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이시며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유익하고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성모님 메시지와 발현 사실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공경과 관련된 다양한 보도들이 있는 후 신앙교리성이 결정하고 공표한 입장의 요지는 메시지와 발현 사건은 신앙교리성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언론보도와 거기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신앙교리성으로부터 나누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2005년에 신앙교리성으로부터 인준받은 형태의 기도문과 성화의 사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가 받지 않은 이 발현 사건과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공경하는 기도 모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발현 사건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앙교리성은 메시지와 발현에 대해 부정적인 판결을 내렸고, 신앙교리성의 이러한 결정은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내용은 새로운 사실일 것입니다. 발현 사건의 진위성과 관련해서 2002년에 폰트 주교님께서 입장을 발표하셨을 때만 해도 1974년에 발표된 신앙교리성의 통지사실만이 알려졌었습니다. 저의 전임 주교님은 80년대에 들어와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마리아 공경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보셨고 이 공경은 1996년에 보머스 주교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공경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바로 성모 마리아를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로 부르고 공경하는 신심행위가 허용된다는 점을 신앙교리성이 확인하고 승인했

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오로 6세 교황님과 신앙교리성이 발현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상처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신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실망스런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는 실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칭호로 성모님을 부르며 앞으로도 줄곧 공경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암스테르담의 경당에서나 또는 과거에 저 또한 여러 번 함께 한 적이 있던 기도의 날을 통해 계속해서 공경을 드릴 수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결정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며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시며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맡기셨던 우리 천상 어머니께 대한 사랑 안에서 언제나 더욱 굳세어 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26) -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천주의 성모여,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2020년 12월 30일 하를렘

하를렘-암스테르담 교구장 주교

요한네스 헨드릭스

네덜란드어 원문을 독일어로 번역함.